

2022년도 서울시 1차 한국사 해설

[정답표]

1	2	3	4	5
④	③	④	②	②
6	7	8	9	10
④	③	①	④	②
11	12	13	14	15
③	③	②	④	②
16	17	18	19	20
③	①	①	③	②

1 - 초기 국가, 동예

1. <보기>의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이 나라에서는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주야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춤추니 이를 무천이라 한다. 또 호랑이를 신으로 여겨 제사지낸다.

- ① 마가, 우가, 저가 등 관직을 두었다.
- ② 철이 많이 생산되어 왜, 낙랑 등에 수출하였다.
- ③ 소노부를 비롯한 5부가 정치적 자치력을 갖고 있었다.
- ④ 다른 읍락을 함부로 침범하면 노비, 소 등으로 변상하는 책화가 있었다.

정답> ④

'이 나라에서는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지냈는데, 주야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춤추니 이를 무천이라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또 호랑이를 신으로 여겨 제사지낸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밑줄 친 '이 나라'는 초기 국가, 동예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동예에는 다른 읍락을 함부로 침범하면 노비, 소 등으로 변상하는 책화(責禍)가 있었다.

오답 해설>

- ① 마가, 우가, 저가 등 관직을 둔 나라는 초기 국가, 부여이다.
- ② 철이 많이 생산되어 왜, 낙랑 등에 수출한 나라는 초기 국가, 변한이다(삼한 중 하나).
- ③ 소노부를 비롯한 5부*가 정치적 자치력을 갖고 있었던 나라는 초기 국가, 고구려이다.

*5부: 소노부, 계루부, 절노부, 순노부, 관노부를 가리킨다. 처음에는 소노부에서 임금을 내었으나, 뒤에 계루부에 주도권을 빼앗겼다.

4 - 여권통문(찬양회)

4. <보기> 내용의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우리보다 먼저 문명개화한 나라들을 보면 남녀평등권이 있는지라, 어려서부터 각각 학교에 다니며, 각종 학문을 다 배워 이목을 넓히고, 장성한 후에 사나이와 부부의 의를 맺어 평생을 살더라도 그 사나이에게 조금도 압제를 받지 아니한다. 이처럼 대접을 받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 학문과 지식이 사나이 못지않은 까닭에 그 권리도 일반과 같으니 어찌 아름답지 않으리오.

- ① 평양의 양반 부인들이 발표하였다.
- ② 발표를 계기로 찬양회가 조직되었다.
- ③ 교육입국조서 발표의 배경이 되었다.
- ④ 이 발표에 따라 한성사범학교가 설립되었다.

정답> ②

'우리보다 먼저 문명개화한 나라들을 보면 남녀평등권이 있는지라, 어려서부터 각각 학교에 다니며, 각종 학문을 다 배워 이목을 넓히고, 장성한 후에 사나이와 부부의 의를 맺어 평생을 살더라도 그 사나이에게 조금도 압제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처럼 대접을 받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 학문과 지식이 사나이 못지 않은 까닭에 그 권리도 일반과 같으니 어찌 아름답지 않으리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보기>는 서울 북촌 양반 여성들이 주축이 되고 300여 명의 여성들이 찬동해 이루어진 '여권통문'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1898년 9월 1일 공표, 일종의 '여성 권리 선언문'). 그리고 이들은 여권통문을 먼저 돌린 직후 찬양회(贊襄會)*를 조직하였다.

*찬양회는 양성원(養成院), 순성회(順成會), 찬양회(讚揚會) 등으로도 불렸으며 통문에서 '신체 수족 이목이 남녀간에 다름이 없는데 어찌하여 여자는 병신 모양으로 평생을 심구에 처하여 남자의 절제를 받는가? 여학교를 세워 남녀평등을 이룩'할 것을 주장하였다. 교육받을 권리와 직업권 및 정치 참여권을 내용으로 하는 찬양회의 통문은 천부 인권 사상에 기초한 것으로 이후 찬양회는 여학교 설립 운동과 여성의 계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독립 협회가 이끈 만민 공동회의 자유 민권 운동에도 참가하였다.

(여권통문) 발표를 계기로 찬양회가 조직되었다. 옳은 설명이다.

오답 해설>

- ① 평양의 양반 부인들이 아니라 서울 북촌의 양반 여성 [부인]들이 주축이 되었다.
- ③ (1895년 2월) 교육입국 조서 발표의 배경이 된 것은 흥범 14조의 발표이다(1895.1).
- ④ 한성 사범 학교가 설립된 것은 교육입국 조서의 발표에 따른 것이다(각 1895.4/1895.2).

5 - (통일) 신라 신문왕 대의 사실

5. <보기>의 정책이 실시된 왕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재위 9년 봄 정월에 교를 내려 내외 관료의 녹음을 폐지하고, 1년 단위로 조(租)를 차등 있게 하사하는 것을 향식(恒式)으로 삼았다.

- ① 독서삼품과를 실시하였다.
- ② 유교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국학을 설치하였다.
- ③ 국학을 태학감으로 고치고 박사과 조교 등을 두었다.
- ④ 국학에 공자와 10철 등의 화상을 안치하여 유교 교육을 강화하였다.

정답> ②

'재위 9년 봄 정월에 교를 내려 내외 관료의 녹음을 폐지하고, 1년 단위로 조(租)를 차등 있게 하사하는 것을 향식(恒式)*으로 삼았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관료의 녹음을 폐지한 것은 (통일) 신라 신문왕 9년인 689년의 일이다.

*향식(恒式): 늘 따라야 할, 정하여진 형식이나 법식
유교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국학이 설치된 것은 신문왕 2년인 682년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독서삼품과가 실시된 것은 (통일) 신라 원성왕 4년인 788년의 일이다.
- ③ 국학을 태학감으로 고치고 박사과 조교 등을 둔 것은 경덕왕 6년인 747년의 일이다(이후 혜공왕 12년인 776년에 다시 국학으로 명칭 고침).
- ④ 국학에 공자*와 10철** 등의 화상을 안치하여 유교 교육을 강화한 것은 성덕왕 16년인 717년의 일이다. 이른바 '석전 의식'은 오늘날도 석전 대제(釋奠大祭)(문묘에서 지내는 큰 제사)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공자의 존호는 '문선왕'이다.

**10철: 공자의 제자 중 학덕이 뛰어난 10명, 이 외에도 당시 72제자의 화상도 가져왔다.

6 - 대한 광복회

6. <보기>의 밑줄 친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이 단체는 조선국권회복단의 박상진이 풍기광복단과 제휴하여 조직하였다. 무력 투쟁을 통한 독립을 목표로 하였고, 군자금 모집, 독립군 양성, 무기 구입, 친일 부호 처단 등 활동을 전개하였다.

- ① 독립군 양성을 위한 신흥강습소를 설치하였다.
- ② 블라디보스토크에 최초의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 ③ 무력 항쟁의 의지를 담은 대한독립선언서를 발표하였다.
- ④ 공화주의 이념에 따라 공화정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정답> ④

'이 단체는 조선 국권 회복단의 박상진이 풍기 광복단과 제휴하여 조직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무력 투쟁을 통한 독립을 목표로 하였고, 군자금 모집, 독립군 양성, 무기 구입, 친일 부호 처단 등 활동을 전개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보기>의 밑줄 친 '이 단체'는 박상진(1884~1921)의 주도로 대구에서 결성된 대한 광복회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1915.7~1918.1).

대한 광복회는 공화주의 이념에 따라 공화 정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오답 해설>

① 독립군 양성을 위한 신흥 강습소를 설치한 단체는 서간도(남만주)의 자치 기관인 경학사(이후 부민단)이다(1911.4).

②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 최초의 임시 정부(대한 광복군 정부)를 수립한 단체는 권업회이다(1911.12). 참고로 대한 광복군 정부가 수립된 것은 1914년 상반기로 추정되고 있다.

③ 무력 항쟁의 의지를 담은 대한 독립 선언서가 발표된 것은 1919년 2월의 일이다(음력으로는 1918년 11월이어서 '무오 독립 선언서'라고도 함).* 만주와 연해주, 중국, 미국 등 해외에서 활동 중인 독립운동가 39명이 서명하였다(작성자는 조소앙).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 최초의 독립 선언서이며, 2·8 독립 선언과 3·1 운동에 선구적 영향을 주었다.

*조소앙이 "1919년 정월, 선언서의 초안을 서두르게 되었다"라고 하였고, 『지산외유일지』에 "3월 11일에 선언서를 인쇄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 따라서 무오 독립 선언은 무오년인 1918년에 발표된 선언서가 아니었으며, 1919년 3월 1일 이후에 발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7 - 고운 최치원(제왕연대력)

7. <보기>에서 (가)의 인명과 그의 저술을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진성왕 8년(894) 봄 2월에 (가) 이 시무 10여 조를 올리자, 왕이 이를 좋게 여겨 받아들이고 아찬으로 삼았다.

- ① 김대문 - 『화랑세기』
- ② 김대문 - 『계원필경』
- ③ 최치원 - 『제왕연대력』
- ④ 최치원 - 『한산기』

정답> ③

'진성왕 8년(894) 봄 2월에 (가)이 시무 10여 조를 올리자, 왕이 이를 좋게 여겨 받아들이고 아찬으로 삼았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보기> 속 '(가)'는 고운 최치원(?857~?)임을 알 수 있다.

최치원의 저술 중에는 신라의 연대기를 정리·편찬한 것으로 보이는 『제왕연대력』이 있다. 『삼국사기』에 책 이름이 전하며 일부 내용이 인용되어 있다. 『삼국유사』 왕력과 『제왕운기』에 영향을 주었다.

오답 해설>

①, ②, ④ 김대문(?~?)은 신라 진골 출신의 귀족이자 문장가이다(신라 중대인 7세기 말~8세기 초 활동). 『한산기』, 『계림잡전』, 『고승전』, 『화랑세기』 등을 저술하였다. 『계원필경』은 최치원의 시문집이다.

8 - 고려 현종 시기의 사실

8. <보기>의 밑줄 친 인물이 왕으로 즉위하여 활동하던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개경으로 돌아온 강조(康兆)는 김치양 일파를 제거함과 동시에 국왕마저 폐한 후 살해하였다. 이 같은 소용들이 속에서 대량원군이 임금으로 즉위하였다.

- ① 부모의 명복을 빌기 위해 현화사(玄化寺)를 창건했다.
- ②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광군 30만을 조직했다.
- ③ 강동 6주의 땅을 고려 영토로 편입시켰다.
- ④ 재조대장경의 각판사업에 착수했다.

정답> ①

'개경으로 돌아온 강조(康兆)는 김치양 일파를 제거함과 동시에 국왕마저 폐한 후 살해하였다. 이 같은 소용들이 속에서 대량원군이 임금으로 즉위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강조의 정변(1009, 고려 목종 12)으로 새로운 왕이 즉위하였다는 내용이므로 밑줄 친 '대량원군'은 고려의 제8대 왕인 현종(재위 1009-1031)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참고로 대량원군은 현종의 즉위 이전의 작위이다(이름은 왕순, 자는 안세).

현종은 부모의 명복을 빌기 위해 현화사(玄化寺)를 창건하였다(1018, 고려 현종 9). 이후 고려의 여러 왕이 행차하여 법회를 베풀었다.

오답 해설>

- ②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광군 30만을 조직한 것은 고려 정종 3년인 947년의 일이다.
- ③ 강동 6주의 땅을 고려 영토로 편입시킨 것은 고려 성종 12년인 993년의 일이다.
- ④ 재조대장경[팔만대장경]의 각판 사업에 착수한 것은 고려 고종 23년인 1236년의 일이다(완성된 것은 고려 고종 38년인 1251년).

9 - 조선 후기의 국학

9. <보기>의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ㄱ. 정상기는 최초로 백 리를 한 자로 축소한 『동국여지도』를 만들어 우리나라의 지도 제작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
- ㄴ. 국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여 신경준의 『고금석림』과 유희의 『언문지』가 나왔다.
- ㄷ. 유득공은 『동사강목』을 지어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우리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 ㄹ. 이종환의 『택리지』는 각 지역의 경제생활까지 포함하여 집필되었다.
- ㅁ. 허준의 『동의보감』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 및 일본의 의학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예방의학에 중점을 둔 것이다.

- ① ㄱ, ㄴ
- ② ㄴ, ㅁ
- ③ ㄷ, ㄹ
- ④ ㄹ, ㅁ

정답> ④

ㄱ. 정상기는 최초로 백 리를 한 자로 축소한 『동국여지도』를 만들어 우리나라의 지도 제작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 틀린 내용이다. 정상기(1678~1752)가 만든 지도는 『동국여지도』가 아니라 『동국지도』이다(1740년대). 여기서 백리척이란 100리(약 40km)를 1척으로 줄여서 나타내는 축척 표기법이다. 참고로 『동국여지도』가 여암 신경준(1712~1781)에 의해 편찬된 것은 영조 46년인 1770년경의 일이다.

ㄴ. 국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여 신경준의 『고금석림』과 유희의 『언문지』가 나왔다. 틀린 내용이다. 『고금석림』이라는 사전을 편찬한 이는 이의봉(1733~1801)이다. 우리말의 사투리(방언)와 어휘[내편]과 해외의 언어[외편]가 정리되었다(1789, 정조 13). 그리고 유희(1773~1837)는 『언문지』를 지어 우리말의 음운을 연구하였다(1824, 순조 24).

ㄷ. 유득공은 『동사강목』을 지어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우리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틀린 내용이다. 『동사강목』을 지은 이는 순암 안정복(1721~1791)이다(1778, 정조 2). 고조선에서 고려 공양왕까지를 다루었으며, 정통 국가·정통 군주에 대해 구별하여 서술하였다. 즉 기자 조선과 마한, 통일 신라, 고려를 정통 국가로, 마한이 멸망한 뒤의 삼국 시대는 정통 국가가 없는 시대로 보았다.

영재 유득공(1748~1809)이 지은 역사서로는 『발해고』가 있다(1784, 정조 8). 여기서 '남북국 시대'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ㄹ. 이중환의 『택리지』는 각 지역의 경제생활까지 포함하여 집필되었다. 옳은 내용이다. 『택리지』는 이중환(1690~1756)이 현지답사를 기초로 전국의 자연환경과 인물, 풍속 등을 정리한 인문지리서이다(1751, 영조 27). 특히 전국 8도 각 지역의 지리적 조건과 경제의 상호 관련성을 밝혀 놓아 우리나라 최초의 지리경제학의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ㄱ. 허준의 『동의보감』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 및 일본의 의학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예방 의학에 중점을 둔 것이다. 옳은 내용이다. 『동의보감(東醫寶鑑)』은 양생(養生)*의 철학을 바탕으로 하여 의학에서 예방의 중요성을 전면적으로 인식한 세계 최초의 의학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의보감이 편찬된 것은 조선 광해군 5년인 1613년의 일이다[허준(1539~1615)이 『동의보감』을 완성한 것은 조선 광해군 2년인 1610년].

*양생: 몸을 튼튼하게 하고 병이 생기지 않게 해서 오래 살기 위하여 음식, 운동, 정서, 성생활 등 생활 준칙을 규칙적으로 하는 방법을 가리킨다.

이상에서 옳은 내용은, 'ㄹ과 ㄱ'이다.

10 - 고려 태종의 정책

10. <보기>와 관련된 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세웠으므로 사찰을 서로 빼앗지 말 것.
- 사찰을 지을 때에는 도선의 풍수사상에 맞게 지을 것.
- 연등회와 팔관회를 성실하게 지킬 것.
- 농민의 요역과 세금을 가볍게 하여 민심을 얻고 부국안민을 이룰 것.

- ① 중국에서 귀화한 쌍기의 건의에 따라 과거(科擧) 제도를 시행하였다.
- ② 귀순한 호족에게 성(姓)을 내려주어 포섭하였다.
- ③ 경제개혁을 수행하여 전시과(田柴科)를 실시하였다.
- ④ 관료제도를 안정시키기 위해 공복(公服)을 등급에 따라 제정하였다.

정답> ②

<보기>에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세웠으므로 사찰을 서로 빼앗지 말 것', '사찰을 지을 때에는 도선의 풍수사상에 맞게 지을 것', '연등회와 팔관회를 성실하게 지킬 것', '농민의 요역과 세금을 가볍게 하여 민심을 얻고 부국안민을 이룰 것'이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보기>는 고려 태조 왕건이 후왕들에게 남긴 '훈요 10조'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942, 고려 태조 25).

고려 태조는 귀순한 호족에게 성(姓)을 내려주어 포섭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호족을 회유하기 위한 포섭 정책의 일환으로 사성(賜姓) 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중국에서 귀화한 쌍기의 건의에 따라 과거(科擧) 제도를 시행한 왕은 고려의 광종이다(958, 광종 9).
- ③ 경제 개혁을 수행하여 전시과(田柴科)를 (처음으로) 실시한 왕은 고려의 경종이다(976, 경종 원년) (시정 전시과).
- ④ 관료 제도를 안정시키기 위해 (백관의) 공복(公服)을 등급에 따라 제정한 왕은 고려의 광종이다(960, 광종 11).

11 - 별무반

11. <보기>의 (가)에 들어갈 군대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제가 전날에 패한 원인은 적들이 모두 말을 탔고, 우리는 보병으로 전투한 까닭에 대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자, 이때 비로소 (가)을/를 만들기로 하였다. -『고려사』-

- ① 광군
- ② 도방
- ③ 별무반
- ④ 삼별초

정답> ③

'제가 전날에 패한 원인은 적들이 모두 말을 탔고, 우리는 보병으로 전투한 까닭에 대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자, 이때 비로소 (가)을/를 만들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출처는 『고려사』로 되어 있다. 이를 통해 <보기>의 (가)에 들어갈 군대는 윤관(?~1111)이 고려 숙종(재위 1095-1105, 제15대)에게 건의하여 편성한 '별무반'임을 추론할 수 있다(1104, 고려 숙종 9). 별무반은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승병)으로 편성되었다(여진족의 침입 대비).

오답 해설>

- ① 광군은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여) 정종 2년(947)에 설치된 부대이다. 약 30만 명 규모였으며, 지방호족의 지휘 아래에 있었던 일종의 농민 예비군이다.
- ② 도방은 고려 무신 정권기, 집권 무신의 사병 집단(숙위 기관)이다. 처음 도방을 둔 인물은 경대승(1154~1183)이고(1179, 고려 명종 9), 최씨 무신 정권을 연 최충헌(1149~1219, 집권 1196-1219)이 교정도감과 함께 도방을 운영하였다.
- ④ 삼별초 고려 무신 정권기, 특히 최씨 무신 정권기의 특수 부대이다. 처음 최우(?~1249, 집권 1219-1249)가 도적을 막기 위해 만든 야별초에서 발전하여 좌별초와 우별초, 몽골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병사들로 조직된 신의군으로 나누어 구성되었다(1232~1273). 최씨 무신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 되었다.

12 - 조선의 천주교 전파 상황

12. <보기>의 조선의 천주교 전파 상황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ㄱ. 이승훈이 북경에서 서양 신부에게 영세를 받고 돌아왔다.
 ㄴ. 윤지충이 모친상 때 신주를 불사르고 천주교 의식을 행하였다.
 ㄷ. 이수광이 『지봉유설』에서 마테오 리치의 『천주실의』를 소개하였다.
 ㄹ. 황사영이 북경에 있는 프랑스인 주교에게 군대를 동원하여 조선에서 신앙과 포교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청하는 서신을 보내려다 발각되었다.

- ① ㄱ - ㄴ - ㄹ - ㄷ
- ② ㄱ - ㄷ - ㄹ - ㄴ
- ③ ㄷ - ㄱ - ㄴ - ㄹ
- ④ ㄷ - ㄴ - ㄱ - ㄹ

정답> ③

ㄱ. 이승훈이 북경에서 서양 신부*에게 영세를 받고 돌아온 것은 정조 8년인 1784년의 일이다. 당시 이승훈(1756~1801)은 1783년 동지사의 서장관인 부친을 따라 청에 가서 베이징 천주교당 북당(北堂)에서 교리 증부를 한 뒤, 이듬해인 1784년에 예수회의 루이 드 그라몽 신부에게서 세례를 받고 귀국하였다.

ㄴ. 윤지충이 모친상 때 신주를 불사르고 천주교 의식을 행한 것은 정조 15년인 1791년의 일이다. 윤지충(1759~1791)은 모친상을 당하자 신주를 없애고 천주교식으로 장례를 치러 사형되었는데 이를 신해사옥(1791) 혹은 '진산 사건'이라고 한다.

ㄷ. 이수광이 『지봉유설』에서 마테오 리치의 『천주실의』를 소개한 것은 광해군 6년인 1614년의 일이다. 이수광(1563~1628)의 『지봉유설』은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적인 저술이다. 참고로 마테오 리치(1552~1610)가 지은 천주실의가 한글로 번역된 것은 18세기 후반의 일이다.

ㄹ. 황사영(1775~1801)이 북경에 있는 프랑스인 주교에게 군대를 동원하여 조선에서 신앙과 포교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청하는 서신을 보내려다 발각된 것은 순조 원년인 1801년의 일이다(신유박해). 황사영 백서 사건이라고 한다.

이상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ㄷ-ㄱ-ㄴ-ㄹ'이 된다.

13 - 일제 강점기 말의 사실

13. <보기>의 법을 한국에 적용한 이후 일본이 벌인 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 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자의 생산·수리·배급·양도 및 기타의 처분·사용·소비·소지 및 이동에 관해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① 학도 지원병제와 징병제를 시행하였다.
- ② 헌병 경찰 제도를 실시하였다.
- ③ 국민 징용령을 공포하였다.
- ④ 여자 근로 정신령을 만들었다.

정답> ②

위에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 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일제의 국가총동원법 제2조의 내용임을 알 수 있다(1938.4). 이어 아래에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자의 생산·수리·배급·양도 및 기타의 처분·사용·소비·소지 및 이동에 관해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일제의 국가총동원법 제8조의 내용이다.

헌병 경찰 제도를 실시한 것은 1910년대의 일이다.*

*일제는 1910년 한일 강제 병탄 직후부터 헌병 경찰제를 시행하였다(~1919년 3·1 운동이 발생할 때까지 실시, '무단 통치기'). 하지만 법령상으로 헌병 경찰제는 이미 강제 병합 이전에 도입되었다. 1907년 10월 '한국 주차(駐劄) 헌병에 관한 건'을 통하여 한국에 주둔하는 헌병이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 업무까지 장악하도록 규정하였다. 병탄 직전에는 한국주차군 헌병사령관이 경무총감을 겸임하게 하고, 1910년 6월 29일 '통감부 경찰관서 관제'를 공포하여 헌병 조직과 경찰 조직을 완전히 통합하면서 헌병경찰제가 확립되었다. 이러한 제도는 조선 총독부로 이어져 헌병 경찰은 일제 무단 통치의 핵심 조직이 되었다.

오답 해설>

- ① 학도 지원병제가 시행된 것은 1943년 10월이고, 징병제가 시행된 것은 1944년 4월의 일이다.
- ③ 국민 징용령이 공포된 것은 1939년 7월의 일이다(실시는 같은 해 10월).
- ④ 여자 근로 정신령이 만들어진 것은 1944년 8월의 일이다(여자 정신 근로령이라고도 함).

14 - 기축봉사(송시열)

14. <보기>의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우리나라는 실로 신종 황제의 은혜를 입어 임진왜란 때 나라가 폐허가 되었다가 다시 존재하게 되었고 백성은 거의 죽었다가 다시 소생하였으니, 우리나라의 나무 한 그루와 풀 한 포기과 백성의 터럭 하나하나에도 황제의 은혜가 미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즉 오늘날 크게 원통해 하는 것이 온 천하에 그 누가 우리와 같겠습니까?

- ① 송시열이 제출하였다.
- ② 효종에게 올린 글이다.
- ③ 북벌 정책에 대해 논하였다.
- ④ 청의 문물 수용을 건의하였다.

정답> ④

'우리나라는 실로 신종 황제의 은혜를 입어 임진왜란 때 나라가 폐허가 되었다가 다시 존재하게 되었고 백성은 거의 죽었다가 다시 소생하였으니, 우리나라의 나무 한 그루와 풀 한 포기과 백성의 터럭 하나하나에도 황제의 은혜가 미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즉 오늘날 크게 원통해 하는 것이 온 천하에 그 누가 우리와 같겠습니까?'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배경지식이 좀 필요한 사료로, 우암 송시열(1607~1689)이 효종 즉위년인 1649년에 올린 '기축봉사'의 일부로 당시의 주류 세력인 서인(이후 노론)의 화이론*적 세계관인 북벌론**이 강하게 투영되어 있는 글이다(『송자대전』). 참고로 임진왜란 때 명 신종(만력제, 재위 1572-1620)이 군사를 보내 조선을 도와 준 것을 이르는 말로, '재조지은(再造之恩)'이라는 말이 있다. '거의 망하게 된 나라(왕조)를 구원해 주어 도와준 은혜'라는 뜻으로 명에 대한 강력한 '부채 의식' 및 '보은 이데올로기' 역할을 하였다('소중화 의식' 형성에도 기여).

*화이론: 중화를 존중하고 오랑캐를 물리친다는 뜻으로, 조선의 대외 정책에 골간이 된 사상이다. 일종의 성리학적 명분론으로, '존화양이론' 또는 '존주론'이라고도 한다.

**북벌론: 명(明)과의 의리를 지키고 병자호란의 치욕을 갚기 위하여 청(淸)에 대한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존명 사대의 명분론적 성격이 강하다.

청의 문물 수용을 건의하는 글들은 '북학론'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기축봉사는 그 반대인 '북벌론'적 성격의 글이다.

오답 해설>

- ① 기축봉사는 송시열이 제출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 ② 기축봉사는 송시열이 효종에게 올린 글이다. 옳은 설명이다.
- ③ 기축봉사는 북벌 정책에 대해 논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15 - 백암 박은식

15. <보기>의 글을 저술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옛 사람이 이르기를, 나라는 없어질 수 있으나 역사는 없어질 수 없다고 하였으니, 그것은 나라는 형체이고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의 형체는 허물어졌으나, 정신만이라도 오로지 남아 있을 수 없는 것인가.

- ① 유교구신론을 써서 유교의 개혁을 주장하였다.
- ② 식민 사학 중 정체성론의 근거를 무너뜨리는 데에 기여하였다.
- ③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2대 대통령을 역임하였다.
- ④ 『한국독립운동지혈사』를 저술하였다.

정답> ②

'옛 사람이 이르기를, 나라는 없어질 수 있으나 역사는 없어질 수 없다고 하였으니, 그것은 나라는 형체이고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제 한국의 형체는 허물어졌으나, 정신만이라도 오로지 남아 있을 수 없는 것인가'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나라는 형체이고 역사는 정신'이라는 표현에서 <보기>의 글은 백암 박은식(1859~1925)의 글임을 알 수 있다(『한국통사』, 1915.6).

식민 사학 중 정체성론의 근거를 무너뜨리는 데에 기여한 대표적인 인물(역사가)은 백남운(1894~1979)이다. 백남운은 사회경제사학자로, 세계사적 발전 법칙인 사적 유물론(유물 사관)에 입각한 조선사회 경제사와 조선봉건사회경제사(상)을 저술하였다(각 1933/1937).

오답 해설>

- ① 박은식은 유교구신론을 써서 유교의 개혁을 주장하였다(1909.3). 옳은 설명이다.
- ③ 박은식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2대 대통령을 역임하였다(1925.3~8). 옳은 설명이다.
- ④ 박은식은 『한국독립운동지혈사』를 저술하였다(1920.12). 옳은 설명이다.

16 - 개항기 초의 역사적 사실들

16. <보기>에서 역사적 사건을 시간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보기>
- ㄱ. 임오군란
 - ㄴ. 강화도조약
 - ㄷ. 갑신정변
 - ㄹ. 텐진조약

- ① ㄱ - ㄴ - ㄷ - ㄹ
- ② ㄱ - ㄹ - ㄴ - ㄷ
- ③ ㄴ - ㄱ - ㄷ - ㄹ
- ④ ㄴ - ㄷ - ㄱ - ㄹ

정답> ③

- ㄱ. 임오군란이 일어난 것은 (조선) 고종 19년인 1882년 6월(음력)의 일이다(1882.6.9~7.13).
- ㄴ.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것은 고종 13년인 1876년 2월(음력)의 일이다(1876.2.3).
- ㄷ. 갑신정변이 일어난 것은 고종 21년인 1884년 12월(양력)의 일이다(1884.12.4, 음력으로는 1884.10.17).
- ㄹ. (갑신정변 수습을 위해 청과 일본 사이에) 텐진조약이 맺어진 것은 고종 22년인 1885년 4월(양력)의 일이다(1885.4.18, 음력으로는 1885.3.4).

이상의 역사적 사건을 시간 순으로 나열하면, 'ㄴ-ㄱ-ㄷ-ㄹ'이 된다.

17 - 고려 후기 성리학자들의 활동

17. <보기>에서 이름과 활동을 옳게 짝지은 것은?

- <보기>
- ㄱ. 이제현 - 만권당에서 원의 학자들과 교류하였다.
 - ㄴ. 안향 - 공민왕이 중명한 성균관의 대사성이 되었다.
 - ㄷ. 이색 - 충렬왕 때 고려에 성리학을 본격적으로 소개하였다.
 - ㄹ. 정몽주 - 역사서 『사략』을 저술하였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ㄹ

정답> ①

- ㄱ. 익재[역옹] 이제현(1287~1367)은 (원의 수도인 연경에 설치된) 만권당에서 원의 학자들과 교류하였다. 옳게 짝지어졌다. 충선왕은 (아들인 충숙왕에게) 선양한 후 원에 만권당을 설치하여 고려의 학자들이 원의 학자들과 교류하게 하였다(1314, 충숙왕 원년).
- ㄴ. 공민왕이 중명한 성균관의 대사성이 된 인물은 (안향이 아니라) 목은 이색(1328~1396이다(1362, 공민왕 7). 옳게 짝지어지지 않았다.
- ㄷ. 충렬왕 때(원 간섭기) 고려에 성리학을 본격적으로 소개한 인물은 (이색이 아니라) 회헌 안향(1243~1306)이다(1290년경). 옳게 짝지어지지 않았다.
- ㄹ. 역사서 『사략』을 저술한 인물은 (정몽주가 아니라) 익재[역옹] 이제현(1287~1367)이다(1357, 공민왕 6). 옳게 짝지어지지 않았다. 참고로 『사략』은 고려 태조부터 숙종까지의 역사를 정리한 것으로, 그 가운데 국왕들의 업적에 대한 평가 부분이 지금 전하고 있다.

이상에서 이름과 활동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ㄱ'뿐이다.

18 - 노태우 정부 시기의 사실

18. <보기 1>의 선언문을 발표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남과 북은 ...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보기 2>

ㄱ. 남북한 동시 유엔(UN) 가입

ㄴ. 서울올림픽 개최

ㄷ. 금융실명제 실시

ㄹ. 6.29선언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정답> ①

<보기 1>에서 '남과 북은 ...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제1조로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4조로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보기 1>의 선언문은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91년 12월에 체결된 남북 기본 합의서임을 알 수 있다(1991.12.13).

- ㄱ.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UN)에 가입한 것은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91년 9월의 일이다(1991.9.18).
- ㄴ. 서울 올림픽(제24회)이 개최된 것은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88년 9월의 일이다(1988.9.17~10.2).
- ㄷ. 금융 실명제가 실시된 것은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3년 8월의 일이다(1993.8.12).
- ㄹ. 6.29 선언이 있었던 것은 전두환 정부 시기인 1987년 6월의 일이다(1987.6.29).

이로써 <보기 2>에서 노태우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은, 'ㄱ과 ㄴ'이다.

19 - 의열단의 활동

19. <보기>의 밑줄 친 '이 조직'의 활동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김원봉이 이끈 이 조직은 1920년대에 국내와 상하이를 중심으로 활발한 의거 활동을 전개하였다.

- ① 독립지사들에게 잔인한 고문을 일삼던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져 큰 피해를 주었다.
- ② 동양척식주식회사에 들어가 그 간부를 사살하고 경찰과 시가전을 벌이기도 하였다.
- ③ 상하이 훙커우 공원에서 열린 일본군의 상하이 점령 축하 기념식장에 폭탄을 던져 일본군을 살상하였다.
- ④ 일제 식민 지배의 중심기관인 조선총독부에 폭탄을 던졌다.

정답> ③

'김원봉이 이끈 이 조직은 1920년대에 국내와 상하이를 중심으로 활발한 의거 활동을 전개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밑줄 친 '이 조직'은 의열단임을 알 수 있다(1919/11).

(중국) 상하이 훙커우 공원에서 열린 일본군의 상하이 점령 축하 기념식장에 폭탄을 던져 일본군을 살상한 인물은 윤봉길(1908~1932)이고, 윤봉길은 (의열단이 아니라) 한인 애국단 소속이다(1931.10).

오답 해설>

- ① 독립지사들에게 잔인한 고문을 일삼던 종로 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인물은 의열단원 김상옥(1890~1923)이다(1923.1).
- ②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 들어가 그 간부를 사살하고 경찰과 시가전을 벌인 인물은 의열단원 나석주(1892~1926)이다(1926.12).
- ④ 일제 식민 지배의 중심 기관인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던진 인물은 의열단원 김익상(1895~1925)이다(1921.9).

20 - 비변사

20. <보기>의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임시로 (가) 를 설치하였는데, ... 이것은 일시적인 전쟁 때문에 설치한 것으로서, 국가의 중요한 모든 일을 다 맡긴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 의정부는 한갓 헛이름만 지니고 6조는 모두 그 직임을 상실하였다.

- ① 오직 군사 문제만을 다루었다.
- ② 고종 대에 폐지되었다.
- ③ 세종 대에 설치되었다.
- ④ 임진왜란이 끝난 후 위상이 추락하였다.

정답> ②

'임시로 (가)를 설치하였는데, ... 이것은 일시적인 전쟁 때문에 설치한 것으로서, 국가의 중요한 모든 일을 다 맡긴 것은 아니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그런데 오늘에 와서 ... 의정부는 한갓 헛이름만 지니고 6조는 모두 그 직임을 상실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임진왜란 이후 국가 최고 정무 기구(국정 총괄 기구)가 된 비변사를 가리키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비변사는 조선 고종 2년인 1865년에 폐지되었다.

오답 해설>

- ① 비변사가 처음 설치될 때는 군사 문제만을 다루었지만 차츰 국정 전반을 다루게 되었다. 참고로 처음의 임시 군무 협의 기구에서 상설 기구화된 것은 명종 10년인 1555년의 일이다.
- ③ 비변사는 (임시 군무 협의 기구로) 처음 설치된 것은 (세종 대가 아니라) 중종 대이다(1510, 중종 5).
- ④ 비변사는 임진왜란이 끝난 후 위상이 추락된 것이 아니라 더 올라가 사실상의 국가 최고 정무 기구(국정 총괄 기구)가 되었다.

- 이 상 -